전호근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14강 맹자, 떠나면서 떠나지 않는 삶

◆ 1교시 제나라를 떠나며

▲ 여러 왕들을 만나다.

장자는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맹자는 제가 직접 번역한 게 없고 또 그렇다고 다른 분들 번역을 그대로 쓰자니 어떤 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인제 또 우리말로 쉽게 된 번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갑갑한 데가 또 있고 아니면 또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라 섣불리 같이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원문을 직접 갖다놓고 제가 여러 분들에게 원문을 해설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오늘은 맹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맹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까요. 결국 맹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양나라도 가고 제나라도 가고 뭐 추나라도 가고, 양나라에서는 양나라 혜왕 만났죠, 양 왕도 만났고요. 제나라에서는 제나라 선왕 만났고 추나라 가서는 추나라 목공 만났고, 노나라 가서는 노나라 평공 만났고 등나라 가서는 등나라 문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중에서 맹자를 중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은 제나라 선왕이요. 선왕은 맹자를 이른바 객경이라고 하는 임시 국정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를 주어서 맹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조언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맹자가 한때 제나라 지방 장관들을 만나고 다니면서,지방 장관들을 평가하는 내용도 맹자의 책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그, 제나라 왕 신하 중에서 맹자가 지방수령들 다섯 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孔距心(공거심)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중용할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에는 제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하고 연나라를 그 침략하는 과정에서 약탈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맹자가 제나라를 떠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맹자는 제나라를 떠나게 되고 그러고 다른 작은 나라에 갔을 때에는 등나라 문공 같은 경우에는 맹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맹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버지인 등나라 정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맹자를 통해서 삼년상을 치르게 하는, 맹자가 하는 조언에 따라서 삼년상을 예법으로 따라서 유가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으니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런 식으로 맡겼던 등나라 문공 같은 사람이 있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작은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또 맹자를 그다지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나라는 맹자에 나오는 것처럼 間於齊楚(간어제초)에요. 제나라 초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동쪽의 강대국 제나라, 남쪽의 강대국 초나라 사이에 간, 사이에 낄 간입니다. 사이도 되고, 끼인다는 뜻도 되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등나라의 문공이 늘 그래요, 事齊乎(사제호)이까, 事楚乎(사초호)이까. 제나라를 섬길까요, 초나라를 섬길까요. 이럴 때 事라고 하는 것은 사대가 되겠지요. 초나라를 큰 나라로 섬길까

www.artnstudy.com

요, 제나라를 큰 나라로 섬길까요. 제 나라를 섬기자니 초나라가 싫어하고 초나라를 섬기자니 제나라가 싫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맹자의 답변은 사실 현실적인 방책은 될 수가 없는 데 죽음으로 싸우든가, 아니면 제나라 초나라 사이에 있는 나라를 포기하든가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백성들이 따라오면 옛날 태왕처럼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키면 나름대로 해볼 만한 항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권모술수라든지 소진장유의 계략을 쓴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맹자에게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맹자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라면 뭐 그 정도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한 단 말이에요. 실제로 등나라는 세력이 아주 약하고 결국 맹자를 중용한다고 하더라도 맹자가 즉위해서 천하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만한 정책을 내 놓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게 되면서 정계를 은퇴하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은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객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즘으로 치면, 교수집단 자문위원회정도기 때문에 그거 같고 정계에 나갔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기야, 뭐 폴리페서(Poli-fessor)라 그래서 아예 대학에서 하는 건 관두고 정치하는 그런 교수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건 예외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맹자는 사실 정계에 들어갔다기 보다는 자신의 꿈을 접은 거죠. 꿈을 접은 내용이 1페이지부터 5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맹자가 결국 제나라를 떠나는데요. 맹자에 보면 그 제나라를 떠나는 게 公孫丑章句下(공손추장구하), 10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나라를 떠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용도 보면 10장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돼있죠. 孟子致爲臣而去(맹자치위신이거)하실세, 이렇게 돼있어요. 맹자가 致爲臣(치위신), 爲臣(위신)은 신하가 되었다는 뜻인데 신하되는 그 처지를 致, 임금에게 바치고 되돌려주고 去, 고향으로 돌아갈 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인제 또 11장에 보시면 孟子去齊(맹자거제)하실세, 이렇게 돼있죠.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이렇게 되어있고요. 12장에도 역시 孟子去齊하실세,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이렇게 돼있고, 13장도 孟子去齊, 14장도 孟子去齊居休,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서 休(휴)땅에, 休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맹자가 뭐 한참 떠나요. 계속 이렇게 떠나는데 떠나는 것이 그렇게 그,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떠나길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떠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고 맹자가 그만큼 제나라를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러면 떠나지 말지, 명분상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든 왕이 자신의 과실을 뉘우치고 고치면 맹자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쭉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10장 처음에 한 번 보시죠. 孟子致爲臣而歸(맹자치위신이귀)하실세, 이렇게 되어있죠. 맹자가 신하된 직책을 致, 임금에게 돌려주고 선왕에게 돌려주고 歸, 돌아갈 때, 王이 就見孟子曰(왕이 취현맹자왈), 왕이 맹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前日에 願見而不可得(전일에 원견이불가득)이라가, 전날, 선생님을 原見(원현), 뵙기를 바랐는데 不可得(불가득), 얻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뵙지 못했다가 得侍하여 同朝甚喜(득시하여 동조심희)러니, 모실 수 있게 되어서는,선생님을 우리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는, 同朝甚喜러니. 同朝는 조정에 함께 있는 여러 신하들입니다. 온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신하들

www.artnstudy.com

이. 저를 비롯해서 임금인 자신을 비롯해서 온 제나라에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매우 기뻐했는데.. 今又棄寡人而歸(금우기과인이귀)하시니, 지금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신다고 하니, 不識케이가 可以繼此而得見乎(불식케이가가이계차이득견호),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可以繼此(가이계차), 이때부터 계속해서 得見, 배울 수 있을 지를 不識,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살짝 만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대답입니다. 對曰 不敢請耳언정 固所願也(대왈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야)이니라, 우리가 보통 쓰는 불감청고소원이 여기 처음 나오죠.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不敢請, 감히 요청하지 못할 뿐이지 固, 본디 참으로 所願,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이 제나라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다만 임금의 정책에 잘못된 게 있는 데, 그걸 고쳐주면 제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요.

▲ 십만 종의 봉록을 사양하다.

他日에 王이 謂時子曰(타일에 왕이 위시자왈), 왕이 찾아와 이 때 다른 날은 훗날이죠. 그 뒤 며칠 뒤 다른 날에 王이 謂時子曰, 왕이 시자라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我欲中國而授孟子室(아욕중국이수맹자실)하고 나는 欲,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中國, 이 때 중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명칭으로서 중국이 아니고요. 國中의 뜻입니다. 나라 한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게 국도니까 국도 한 가운데에 授孟子室, 맹자의 학궁, 맹자아카데미를 授, 주고 제나라 수도 한 가운데 맹자아카데미를 지어주고 그리고 養弟子以萬鍾(양제자이만종)하야 萬鍾은 인제, 제나라의 단위 이예요, 두구부종이라고. 그래가지고 4두가 1구가 되고, 4구가 1부가 되고, 10부가 1종이 되는 곡식 양을 헤아리는 단윕니다.
그래서 만종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봉록이구요. 제자들을 만종의 봉록으로 양성해서 使諸大夫國人(사제대부국인)으로, 여러 대부들과, 대부들은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國人들,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皆有所矜式(계유소긍식)하노니 皆, 모두 矜式,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긍이고 식은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자랑스럽고 공경하게 할 所, 그 대상 곧 맹자죠. 맹자같은 스승이 有, 있게 하고자 하니 자합위아언지(子盍爲我言之)오, 그대는 盍, 어찌 이렇게 하지 않는가. 我, 나를 위해서 언제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가. 결국 제나라 선왕은 맹자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신하인 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 거죠. 나는 이 제나라 국도 한 가운데에다가 맹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온 나라 사람들과 또 여러 제자들을 양성하게 해서 온 나라 사람들과 또 대부들이 맹자 같은 현인이 자기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를 본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맹자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냐. 가서 붙들어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時子因陳子而以告孟子(시자인진자이고맹자)어늘, 시자가 진자라고 하는 맹자의 제잡니다. 진자를 통해서 告孟子, 맹자에게 이렇게 일렀다. 제나라 임금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자 陳子 以時子之言으로 告孟子(이시자지언으로 고명자)한대, 진자가 시자의 말을 가지고 맹자에게 일렀다. 孟子曰 然하다, 그럴거다. 夫時子 惡知其不可也(부시자 오지기불가하야)리오, 즉 시자가 어찌 不可,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이 제나라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如使予欲富(여사여욕부)인대, 내가, 如使는 설사 가령이란 뜻입니다. 설사 予, 欲富, 부유하기를 바란다면은 만종의 봉록이 탐나서 제나라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면, 辭十萬而受萬이 是爲欲富乎, 십만 종의 봉록을 사양하고 수만 만종의 봉록을 받는 것이 欲富, 부를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십만 종의 봉록을 주겠다고 했는데 맹

www.artnstudy.com

자가 사양했단 말예요. 사양했는데, 다른 정치적 문제로 맹자가 떠나게 되었는데, 왕이 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대로 놔두면서 만종의 봉록을 줄 테니까 제나라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내용이 쭈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두 줄 건너가보죠.

古之爲市者(고지위시자)는 거기서부터 보죠..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죠. 古之爲市者 以其所有로 易其所無者(고지위시자는 이기소유로 역기소무자)어든, 古之, 옛날의 爲市者,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은, 사고팔던 사람들 위시는,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던 사람들은 以其所有로 그들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易其所無者어던 그들에게 所無, 없는 물건을 易, 바꾸었는데 물물교환을 했다는 얘깁니다. 有司者治之耳(유사자치지이), 有司者,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 담당자가 治之, 그들을 다스릴 뿐이었는데, 治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서로 흥정이나 또 거래 관계 속에서 뭐 서로 불편하거나 잘못되거나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일이 있으면 그걸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만 했는데 有賤丈夫焉(유천장부남언)이 여기에 어떤 천박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냐 必求龍斷而登之(필구농단이등지)하야, 용자로 되어있습니다. 언덕 농(壟)잡니다. 요 글자(壟)를 그냥 요렇게 용 龍자를 흙토(土) 자가 빠져 있는데 요 글자(壟)와 같습니다. 농, 언덕이라 이런 뜻입니다. 농단하면, 단은 단해, 한쪽이 벼랑처럼 깎아지른,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높은 언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높은 언덕을 求, 찾아서. 登之, 그 위에 올라가서. 以左右望而罔市利(이좌우망이망시리)어늘, 좌우로 살펴보고서는 시장의 이익을 罔, 망라했다. 망은 이제 독점했다 그런 뜻입니다. 망은 옆에 실사가 있으나 없으나 그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물질 한다는 뜻으로 쓰고 또 그물질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은 일테면 속인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인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이익을 망라한다. 이런 뜻입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시장의 이익을 망라했는데 결국엔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독점하려고 했는데 人皆以爲賤(인계이위천)이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다고 이야기 했다. 고(故)로 종위정지(從而征之)하니, 그 때문에 從而征之, 그런 사람을 따라서 征之, 세금을 물렸다. 그전에는 시장에 세금을 안 물렸다. 征商이 自此賤丈夫始矣(정상이 자차천장부시은의)니라 商, 상인들에게 상거래 행위에 征은 세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그 제도가 이 천한장부로부터 시작되었다.

▲ 제나라에 머물 수 없는 이유

맹자의 이야기는 이게 뭐 정말 그 상행위의 역사적 근원을 밝힌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맹자가 추정컨대 옛날에는 본래 시장에서 서로 예를 들면 농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장장일 것이고 농작물을 수확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부일 것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농기구를 제공하고 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시장을 다스리는 관리가 그 두 사람에게 세금을 따로 거두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익을 다 독점하려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사람 때문에 세금을 거두게 했다. 그러니까 이익을 독점한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잘 안 이뤄져 그런지 이익을 독점하는 걸 굉장히 권장 하는듯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미국의 반독점법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거의 뭐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끼워 팔기 식으로 소프트

www.artnstudy.com

웨어를 넣어서 예를 들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안에 인터넷을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넣어서 넣는 게 반독점 금지법에 걸려서 벌금내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독점행위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자체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불공정경쟁이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좋은 점은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게 자본주의 장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살아나는 거죠.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제도보다 앞선다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계속 버텨온 건데, 그걸 흔들어 버리는 게 인제 독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천하게 자기 밖에 없다면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곡물을 어떤 한 나라만 곡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모든 다른 나라들이 종속이 되어버리죠. 기업이 있다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점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맹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익 저런 이익 다 망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세금거두는 일이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 일이 그런 일 때문에 생겨나기야 했겠습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사가 계속 발전해왔죠. 그리고 그걸 잘 거두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게 지금 아닙니까? 지금 세금을 안내고 탈세를 하고 탈루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죠. 공정하게 잘 거둬들여야 되는 데 수입이 노출된 사람들만 잘 거두고 아닌 사람들 못 거두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젠데, 이걸 뭐 세금제도의 근원을 밝혀주는 내용으로 보면 곤란하고 다만 독점이라는 행위가 상거래 행위에서 볼 때도 올바르지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맹자가 제나라에 온 이유는 제나라 선왕과 의기투합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제나라 선왕이 막 그거는 관두고 아까 맹자아카데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맹자대학 이런 게 되는 거죠. 사람이름 딴 대학 많잖아요. 버클리 대학도 있고, 산타바바라대학도 있고. 저는 산타바바라대학을 보고 뭐 그런 이름의 대학이 있나 했더니 명문대학이더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중에 명문대학이든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름 맹자대학이 되겠죠. 맹자대학, 맹자대학 총장으로 모실 테니까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맹자가 가장 중요한 왕도정치를 펼 수 있는 기반이 사라졌는데 그게 이익이 좀 된다고 해가지고 십만 종 놔두고 지금 만종 되는 봉록까지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천한 장부, 이때 천하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가치이외에 더 중요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 때 이익은 금전적인, 독점적인 그런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인제 사료로 제시하면서 결국 제나라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장을 간단히 보면요. 孟子去齊(맹자거제)하실세,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숙어주(宿於晝)러니, 晝라고 하는 고을에 宿, 머물렀다. 숙은 하룻밤 묵는단 뜻입니다. 하룻밤 묵는 걸 숙자 쓰고, 이틀 밤 묵는 걸 신자 쓰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어떤 사람이 인제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인제 맹자가 떠나는 걸 말리려고 찾아왔는데 맹자가 왕명을 받지 않고 찾아온 사람이 공명심으로 맹자를 한 번 만류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당치 않다고 보고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 사흘을 묵고 떠나지만 오히려 빠르다

12장이 의미가 있는 대목이니까 12장을 한번 천천히 한 번 보죠. 맨 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게 인제 12장인데요. 孟子去齊(맹자거제)하실세,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尹士語人曰(윤사

www.artnstudy.com

어인왈), 제나라 지식인 중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윤사가 語人,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語人曰, 사람들에게 語, 이르기를 曰, 이렇게 말했다. 맹자가 만약 이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不識王之不可以爲湯武(불식왕지불가이위탕무)면, 則是不明也(칙시불명야)요, 맹자가 만약 王之不可以爲湯武면, 이 제나라 왕이 탕무 같은 탕 임금이나 무왕 같은 성군이 不可以爲, 될 수 없다는 것을 不識, 알지 못하고 만약에 왔다면, 즉시 不明也요. 그것은 맹자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나라 왕이 시원찮은데 그거 모르고 왔다면 맹자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또 반대로 識其不可(식기불가)요, 안 된다는 걸 알고서 탕무 같은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然且至(연차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至, 제나라에 왔다면 則是(칙시), 干澤(간택)이 아닌 이것은 은택을 구한 것이다. 干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제나라 임금이 자기를 등용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千里而見王(천리이견왕)하야 不遇故 去(불우고 거)하되, 천리 길을 멀다하지 않고 찾아온 게 맹자잖아요. 不遠千里而來(불원천리이래)라구요. 천리 길을 찾아와서 見王, 왕을 만나서 不遇故, 구하되 遇, 만나지 못하다 不遇故, 맹자와 왕의 뜻이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去(거), 떠나는데 三宿而後出晝(삼숙이후출주)하니, 맹자가 주 땅에서 사흘이나 묵고 갔단 말이에요. 사흘이나 묵은 뒤에 出晝, 주 땅을 떠나니 시하유체야(是何濡滯也)요, 어찌하여 이렇게 더딘가? 떠나려면 확 떠나지 뭐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혹시 붙잡아주지 않나 실제로 맹자가 그래요. 안 떠나고 있는 거는 혹시 제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 정책을 바꿀 테니까 있어 달라. 이렇게 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체하느냐 士則玆不悅(사칙자불열)하노라. 윤사의 이름이죠. 士, 윤사. 나는 玆, 이게 불쾌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제자 고자가 맹자에게 그 사실을 일러줍니다. 古字以告(고자이고)한데 고자가 그 사실을 알리자 왈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夫尹士 惡知予哉(부윤사 오지여재)리오, 저 윤사가 惡, 어찌하여. 知予, 나를 알겠는가. 내 본래의 뜻을 알겠는가. 千里而見王是予所欲也(천리견왕시여소욕야)니, 천리 길을 멀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見王, 왕을 만나는 것은 予所欲, 내가 바란 것이다. 그런데不遇故去(불우고거)가니, 不遇故, 서로 뜻이 부합돼지 못해서 그 떠나는 것이 豈予所欲哉(개여소욕재)이요. 어찌 내가 바라는 것이겠는가. 予不得已也(여부득이야)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다. 이게 맹자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予三宿而出晝(여삼숙이출주)어되, 내가 사흘 밤이나 묵고 주 땅을 벗어나는데도 於予心(어여심)에 猶以爲速(유이위속)하니 내 마음속에는 以爲速, 오히려 빠르다고 생각한다. 王庶幾改之(왕서기개지)니, 왕이 고치기를, 뭘 고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제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약탈을 하는, 맹자가 그랬거든요. 제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노약자들을 포로로 잡고 천기중기 그 연나라의 보배로운 기물들을 제나라로 반출하고 침략자는 늘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탈행위를 하는 걸 보고 맹자가 그랬거든요. 당장 그거 다 돌려주고 그러고 연나라 백성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임금을 세워준 다음에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나라 왕이 그걸 듣겠습니까? 원래 생각이 있어서 연나라 병합하려고 그런 건데요. 원래 이게 제나라 선왕이 이건 하늘에 뜻이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제나라와 연나라의 국가공유는 비슷한데 실제로 생산력에선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요. 삼십일 만에 제나라가 연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정도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속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나라가 거의 저항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www.artnstudy.com

만약에 연나라를 병합하지 않으면 하늘이 노여워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터무니없이 들이대요.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도 초강대국들이 이라크 가서 이라크 백성들이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건데, 하기야 자기가 침략자다 이러고 들어갈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은 평화유지군이다, 이러고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게 맞지 않아서 부득이 떠나는데 그걸 고치길 바란 거죠. 王庶幾改之(왕서기개지)니, 왕은 왕이 改之, 그 과실을 고치기를 庶幾, 내가 바라니 王如改諸(왕여개제)시면 이 왕이 만약 그 과실을 고친다면 왕이 만약 그 과실을 고친다면 則必反予(칙필반여)시니라, 왕이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하신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2교시 맹자, 천년을 기약하다.

▲ 제나라를 떠나다

다음 2페이지 넘어가서 夫出晝而王不予追也(부출주이왕불여추야)하실새, 주 땅을 벗어났는데도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으니까 予然後浩然有歸志(여연후호연유귀지)하니, 내가 그런데 홀가분하게 浩然有歸志, 돌아갈 뜻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흘 밤이나 묵고 기다렸는데도 왕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사신을 보내지 않더라.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맹자아카데미나 만들자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 와갔고 붙들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난 그렇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 予雖然(여수연)이나, 내 비록 그렇게 떠나지만, 豈舍王哉(개사왕재)리오, 어찌 왕을 버린 것이겠는가. 王由猶足用爲善(왕유유족용위선)하시러니, 왕은 그래도 足用, 충분히 선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王如用予(왕여용여)시면, 이 왕이 만약 나를 등용하신다면 즉 則豈徒齊民安(즉개도제민안)이리오. 어찌 한갓 제나라 백성만 편안하겠는가. 천하재민이 거안하리니 천하의 백성들이 거안 모두 거자입니다. 모두 편안할 것이니 王庶幾改之(왕서기개지)를 予日望之(여일망지)하노라. 왕이 그것을, 그 과실을 고치기를 내가 날마다 望之, 바란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요, 予豈若是小丈夫然哉(여기이약시소장부연재)라. 내가 어찌 이 쩨쩨한 소장부처럼 하겠는가 대장부다 이거죠. 자기는 諫於其君而不受則怒(간어기군이불수애칙노)하야 그 임금에게 간했는데 不受,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노해가지고 悻悻然見於其面(행행연현어기면)하야, 발끈하면서 그 얼굴색에 노여워하는 모습이 見, 드러나서 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거즉궁일지력이후숙재)리오, 한번 떠나면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힘,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힘을 다한 뒤에 宿, 묵겠는가.

예를 들어서 맹자가 아니고 쩨쩨한 사람이라면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팩하고 떠나서 그날 갈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묵고, 그 다음 날 또 멀리 떠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왕이 사신을 보내올 만한 곳에 가서 주라는 곳에 가서 그냥 사흘 동안 있는 거예요. 혹시 왕이 불러 줄까봐, 그러면 돌아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나 이제 떠난다. 하지만 내가 왕을 버린 게 아니고 이거 왕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尹士

www.artnstudy.com

聞之(윤사문지)하고 曰士(왈사)는 誠小人也(성소인야)로다. 인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으로 소인이로구나. 그 뜻을 제대로 몰랐다." 이래요. 우리가 얼핏 보면 맹자가 제나라에 머무르고 싶어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모순되게 보이지만, 요 대목을 잘 읽어 보면 맹자가 제나라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제나라 왕이 정책을 바꿔서 맹자를 등용하면 자기는 제나라 백성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런데 떠나니까 슬픈 거죠. 그래서 혹시나 불러 줄까하고 있는데 불러주는 조건 자체가 뭐 엉뚱한 조건이고 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떠나는 거죠. 맹자 스타일, 유가스타일의 그 출처관인데요. 공자가 노나라 갈 때도 노나라를 떠날 때도 일부러 천천히 떠납니다. 홱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떠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날 때든가 하여튼 제갈공명이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때보면 봄날이 느리고 느리다. 봄날이 길고 길다. 춘일지지란 표현 비슷하게 나와요. 春日遲遲(춘일지지)란 표현은 원래 詩經(시경)에 나오거든요. 나오는 시구에요. 봄날이 길고 길다. 시경 칠월장(七月章)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낭만적인 신데,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밖에서 유비가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갈공명이 그 비슷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천하를 위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뜻을 꺾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갈공명이 반드시 유가에 부합하는 인물형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삐져서 팩하고 돌아서고 이런 게 없는 거죠. 특히 맹자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공자는 좀 삐져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맹자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 그 때는 그 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러고 13장도 한번 보죠. 孟子去齊(맹자거제)하실새, 그게 인제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충우라는 제자가 路問曰(로문왈), 充虞路問曰(충우로문왈), 充虞路, 길가는 도중에 問曰, 길 路자 자체가 길을 간다는 용언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길가는 도중에 이렇게 물었다, 여쭸다. 夫子若有不豫色然(부자약유불예색연)하시나이다. 夫子, 선생님께서 若有,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不豫色, 불쾌해 하시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불쾌라기보다도 섭섭해 하는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前日(전일)에 虞聞諸夫子(우문제부자)하니, 전날 우(虞), 充虞(충우), 제가 선생님께 들었다. 그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曰君子는 不怨天(불원천)하며 不尤人(불우인)이라 하시니이다. 군자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탓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하늘도 원망하는 것 같고, 하늘이여 왜 저를 제나라에서 있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것 같고, 또 不尤人도 아니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나라 임금도 탓하고 있으니까, 사람 탓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옛날처럼, 사람을 불원천 불우인, 하늘도 원망치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는다. 이건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말인데, 왜 그렇게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맹자曰이에요. 彼一時(피일시)며 此一時也(차일시야)니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 때는 그 不怨天 不尤人(불원천 불우인)이란 말이 맞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적용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때는 그 때고 지금은 지금이니라. 왜 그러냐, 五百年(오백년)에 必有王者興(필유왕자흥)하나니, 오백년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 오백년마다 必有王者興하나니, 반드시 왕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其間(기간)에 必有名世者(필유명세자)니라, 그 사이에 반드시 名世, 세상에 이름난 자, 세상을 책임질 만큼 이름

www.artnstudy.com

난 자들이 있었다. 五百年(오백년)에 必有王者興(필유왕자흥)이, 왕자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 사이에 名世者정도는 자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由周而來유주이래로 七百有餘世矣(칠백유여세의)니, 그런데 주나라 이래로부터, 칠백여년이 흘렀다. 以其數則過矣(이기수칙과의)요, 그러니 그 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過, 지났고. 오백년 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지금 칠백년 됐으니까 지났잖냐. 이걸 갖고 또 뭐 오백년 순환론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맹자가 그러잖아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래 한 오백년 씩 됐다. 그리고 오백년 정도 되면 일어나게 마련인데 지금 칠백년 됐는데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지금 반드시 일어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순환론이라고 할 순 없죠. 이미 칠백년 됐다고 하면 오백년 순환론은 무너진 건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맹자가 오백년 마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읽은 것은 잘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순환론이다 이러는데 순환사관 아니고요. 사마천이 이런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사마천 역사관 속에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백년 마다 보면 일어나는데 지금 칠백년 지났으니까, 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以其時考之則可矣(이기시고지칙가의)니라, 이 시대의 정신으로 考之, 고찰을 해보면 可矣, 王者가 일어날 만하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제나라에 등용되지 못했다. 夫天(부천)이 未欲平治天下也(미욕평치천하야)시니, 그렇다면, 즉 하늘이 未欲平治天下也, 아직 천하를 평치하지 않고자 하신 것이니 如欲平治天下(여욕평치천하)인댄, 만약 천하를 평치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하늘이 當今之世(당금지세)하여 舍我(사아)요 其誰也(기수야)리오,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舍我, 나를 놔두고. 其誰也,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吾何爲不豫哉(오하위불예재)리오, 내 무엇 때문에 섭섭해 하겠는가. 앞에서는, 내가 섭섭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등용되지 않은 걸 보면 아직 하늘이 천하를 다스리고자 뜻이 없는 것 같다. 만약 하늘이 다스리고자 한다면 나 놔두고 누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를테면 어려운 상황이나 섭섭한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역시 봉록을 받지 않고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마찬가지 맥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맹자는 제나라를 떠나면서 대단히 애석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몇 쪽을 넘어 가겠습니다.

▲ 시와 역사

몇 쪽을 넘어가서 4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離婁長丘下(이루장구하) 4항하고 중간에 제21장 있죠. 시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孟子曰王者之跡(맹자왈왕자지적) 熄而詩亡(식이시망)하니 時亡然後(시망연후)에 春秋作(춘추작)이라, 王者의之跡, 왕자의 자취가 熄, 종식되고 나서 詩亡, 시가 사라졌다. 時亡然後, 시가 사라진 뒤에 春秋가 짝지어졌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가 없어졌다. 맹자 당시에 시가 없어졌을 리야 있겠습니까? 시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詩經이라고 말하는 의미의 시입니다. 주나라는 시로 다스린 나라예요. 시경의 시는 주십니다. 주나라 시예요. 물론 인제 書도, 사실은 주나라 역사를 기록한 것이니까, 주서예요. 그러고 이제 주나라 역사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은나라역사도 보태지고 하나라 역사도 보태지고 나중에 요순도 보태지고 한 겁니다. 일단은 주나라시대에 기록이 된 거구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그 때 것이고요, 뭐 주역은 당연히 주나라 역인데 이 주자를 어떤 학자는 일주의 뜻

www.artnstudy.com

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책받침 빼고 周는 代名也라, 시대명칭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더 사실 설득력 있고요. 어쨌든 周詩를 의미 하는데 주나라의 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하면, 風, 풍은 민속가요여요.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는데 그 노래를 채집해서 천자국에 보냅니다. 천자가 예를 들어서 제나라다 위나라다. 또 뭐 정나라다, 등등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시를 쭉 살펴보고 시의 내용이 훌륭한 정치를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건 정치를 잘했다고 판단하고 올려주고요. 직급을 상향해서 공후백자남의 지위 중에서 자작을 남작으로 승진시켜주고, 남작을 백작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 내용이 시원찮다. 임금원망하고 이런다. 그럼 그 임금의 직책을 남작에서 자작으로 낮추고 백작에서 남작으로 낮추는 식으로 또는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정치를 펼친 게, 시여요. 시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논어에도 나옵니다.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제대로 본국에 연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 삼백 다 외워도 별 소용이 없잖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시가 늘 현실을 제대로 노래를 할 때 시가 살아있으면 역사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살아있으면 바로 바로 현실이 바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가 죽었단 얘기는 시라는 장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가 그냥 좋은 시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엉망인데 좋은 시만 쓰는 거예요. '아유, 아름다워라', 뭐 이런 식으로요. 세상이 하나도 안 아름다운데 '아름다워라' 그러고. 시 쓰면 시가 죽는 거예요. 시가 아니니까. 그런 식이 시가 죽는 거예요. 王者의 자취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왕자가 천하에 있어서 각 제후국들의 나오는 시를 채집해서 그걸 갖고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상한 송덕비나 세우고 이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칭송이나 하고요. 저는 이제 요즘 텔레비전 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통치자가 서면은 그냥 통치자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북녘에서 무슨 경외하는 지도자니 무슨 뭐 무슨 태양이니 이런 걸 막 비난하는데요. 제 기억이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민족의 태양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팔십년 인가 그랬어요. 얼마 안 되는 시긴데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알고면 다 아시죠? 저도 뭐 80년, 81년, 민족의 태양 막 그랬어요. 신문에요. 구국, 뭐 다 그랬는데 그런 식의 그냥 그 때 쓴 시도 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시도 있죠. 오적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시들은 시가 살아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가만히 문학이 잠자고 있으면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지만 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대체로 그런 걸 오히려 정치적인 시고, 그거하지 않는 게 순수문학 뭐 이래가지고 순수문학이라 그랬는데. 사실 순수문학이야 말로 정치적인 문학이죠. 그것도 가장 더러운 정치에 해당하는 건데 이상하게 역으로 알고, 어쨌든 그런 시가 사라지면 그 다음엔 할 수 없이 역사로 가는 겁니다. 역사 전공하는 분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역사는 이제 과거의 기록이거든요. 시가 살아있으면 현실을 바로바로 바로잡고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마천의 말이잖아요.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맹자가 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바로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교정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는 게 인제 맹자식의 해석입니다.

▲ 미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www.artnstudy.com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37장 미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보죠. 여긴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죠. 길죠. 이른 바 광견(狂狷), 狂者와 狷者가 있습니다. 본래 논어에도 나오죠. 광자, 견자.. 광자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인데 요즘 우린 미쳤다 그러면 워낙 나쁜 걸로 보니까 근대에서 미쳤다 그러면 근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되니까 비정상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란 게 사실 아주 웃기잖아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정신병 환자로 판정을 받은 백 명의 환자를 다른 정신 병원으로 보내서 이 중에 가짜가 있는지 가려달라고 했더니 다른 정신병원에서 백 명이 다 가짜라고 판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일거야 이렇게 보면 다 정신병자가 되고, 아닐 거야 하고 보면 다 멀쩡한 사람이 되는 정도의, 아닐 거야 하는 주관적인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누구죠. 카프카던가, 그런 말을 하죠.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미친 것의 한 표현이다 했거든요.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그것도 미친 것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다 미쳤다하는 걸 얘기하려고 한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런데 논어에 나오는 미친 자의 기준은 저런 겁니다. 이를테면 논어 식으로 하면 發憤忘 食(발분망식)이에요. 한번 憤(분)은 뭐 흥분했다. 또는 흥미를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흥미가 發, 일어나면 忘食이에요. 망식,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미치긴 미친 거죠. 밥 먹는 걸 잊어버리면 미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랬느냐 공자가 이랬어요. 공자가 그리고 요건 스스로 한 말이고요. 스스로 나는 한 번 빠지면 밥 먹는 것도 잘 잊어버려. 그리고 樂以忘憂(낙이망우), 한 번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으로써 忘憂, 근심을 잊어버려요. 근심을 잊지 못할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아닌 거죠. 그러고 이제 不知老之將至雨(부지노지장지우)라고 그래가지고 알지 못한다. 老, 늙음이라는 것이 將至, 도달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늙는 줄을 모른다. 늙는 줄을 모른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즐거움이고 재미고 뭐 이런 거죠. 논어에 보면 늙음이나 생로병사나 이런 고통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일체 없으니까 사실 후세에 성리학자들이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워 하고, 죽음이나 뭐 이런데 대해서 얘기 안한 게 아니고 수준 높은 제자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이야기 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牽强附會(견강부회)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기한 게 있으면 얘기한 거고, 얘기한 게 없으면 얘기 안한 걸로 쳐야 이게 문헌연구가 되는 겁니다. 뭐 얘기 했을 순 있겠죠. 언젠가 근데 그걸 중요시했다면 논어에 기록이 돼있을 텐데, 없잖아요. 물었을 때 오히려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자로가 물으니까 未知生 言知死(미지생 언지사), '아직' 이라는 말이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부죠. 귀신 섬기는 방법 물으니까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제대로 섬기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달리 해석하는 주자 같은 경우에는 '삶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삶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죽음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이러는데 공자는 그런 얘기 안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거죠. 뭐 이런 정신적 상태, 나쁜 의미의 미친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으로 한 부분이 아주 열정적인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인제 뭐,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이상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게 없으면 사람이 되지를 않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여러분 고전공부도 한 번 거기에 확 미쳐서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해야 이게 그 이후에 뭔가 그 다음에 되는 거지 그거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 자랑이 되는데, 제 자랑을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시경

www.artnstudy.com

을 공부할 때 잠꼬대로 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시가 머릿속에서 넘쳐나는 느낌이 드는데, 완전히 미쳤던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방법이나 따지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일종의 약간 미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럴 것이고 아마 어떤 요즘 마니아들, 특정기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제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 또 지름신이라고 하는 물신에 빠지는 수도 있고, 뭐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것도 좀 생존할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게 바로 광자인데. 이건, 이 광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好古(호고) 마니아여요. 호고마니아. 그러니깐 옛것을 좋아하는 마니아입니다. 옛것을 좋아하는데 이 옛 것이라고 할 때 古는 고인이에요. 고인, 고인하면 옛것의 고인이에요. 고인하면 옛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만 뽑아서 고인이라 하고, 고전이라고 하는 것과 고전 그러면 그냥 옛날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훌륭한 책이 고전이잖아요. 그것처럼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마니아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모든 행동이나 뜻은 말할 것도 없이 행동도 다 이 사람하고 같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능력이 안돼요. 뜻은 높은 데 옛사람처럼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포기 하지는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옛사람처럼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옛사람처럼 되겠다고 하는 뜻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그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낙관과 긍정의 힘이죠. 거의 절대적 낙관과 절대적 긍정입니다. 맹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결코 좌절로 표현되지 않거든요. 맹자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거의 도가 단절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맹자의 힘이죠. 그런 의미의 광자고. 견자는 '고집 센 사람' 정도가 되요. 이 사람은, 견자는 어떤 의미냐면, 뜻은 포기했어요. 뜻은 포기했지만 최소한 하지 않는 게 있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 그게 광자와 견자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향원(鄕原), 향원은 인제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향원은 세속에 영합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하고 넘어가는 사람. 세 가지 인물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君子, 중도를 실천하는 군자 이게 최고죠. 광자는 뜻은 높지만 행동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고 군자는 뜻도 높고 행동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인제 과정적인 인간이겠죠. 군자가 그런 내용을 공자의 말을 받아서 맹자가 하고 있는 부분이 37장에 나오는 미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깁니다.

▲ 맹자, 천년을 기약하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부분 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38장에 천년을 기약하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천년을 기약하다는 제목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왜냐면 오백년 만에 안 되니까 천년을 기약한 거죠. 그 전까지의 이른바 유가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요순우탕문무주공까지는 오백년씩 기약했는데 맹자는 거기에 두 배라고 해야 될까. 두 배로 천년을 기약한 겁니다. 왜냐면 칠백년 됐는데도 안 되니까 천년을 기약한 거죠. 한 번 보죠. 孟子曰,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由堯舜至於湯(유요순지어탕)이 五百有餘歲(오백유여세)니, 五百有餘歲(오백유여세)니, 요순으로부터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 유가의 성인이 다스린 그 시대부터, 至於湯, 탕임금에 이르기까지 五百有餘歲(오백유여세), 오백여년이 흘렀다. 그래서 若禹皐陶則見而知之(약우고요즉견이지지)하시고, 우임금이나 요순의 신하였다 말이에요. 고요 역시

www.artnstudy.com

요순의 신하였어요. 우나 고요 같은 경우는 그 요순의 도를 見而知之, 직접 보고 알았을 것이다. 같은 시대 살았으니까 그리고 若湯則聞而知之(약탕즉문이지지)하시니, 탕임금 같은 경우 오백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聞而知之, 들어서 알았을 것이다. 도가 전해졌는데 그걸 들어서 알았다. 그리고 由湯至於文王(유탕지어문왕)이 五百有餘歲(오백유여세)니, 탕임금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가 五百有餘歲, 오백여년이 흘렀으니, 若伊尹萊朱則見而知之(약이윤래주즉견이지지)하고, 이윤과 내주는 탕임금의 신하였기 때문에 탕임금의 도를 직접보고 알았을 것이다. 見而知之. 見은 親見입니다. 직접 봤고, 若文王則聞而知之(약문왕즉문이지지)하시니라, 문왕 같은 경우는 듣고 알았을 것이다. 누군가 도를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탕 임금의 도가 뭔지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요, 由文王至於孔子(유문왕지어공자)가 五百有餘歲(오백유여세)니, 문왕에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년이 흘렀으니, 若太公望散宜生則見而知之(약 태공망 산의생즉견이지지)하고, 太公望(태공망)이나 散宜生(산의생)같은 문왕의 신하들은 見而知之, 직접 보고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전했을 거다, 이거예요. 후세에요. 若孔子則聞而知之(약공자즉문이지지)하시니라. 공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도가 무엇인지 아셨을 것이다. 태공망 산의생은 문왕의 신하죠, 탕임금이 아니고. 由孔子而來(유공자이래)로 至於今(지어금)이 百有餘歲(백유여세)니, 공자이래로 지금에 이르기 까지가 백여 년이 흘렀으니, 去聖人之世(거성인지세)가 若(약)此其未遠也(차기미원야)며, 맹자와 공자,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백여 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맹자의 시대가..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去聖人之世(거성인지세)가 若此其未遠也(약차기미원야)며, 성인이 살았던 시대와 이처럼 멀지않으며, 백년 밖에 안됐으니까, 오백년이 아니고 백년 밖에 안됐다. 그리고 近聖人之居(근성인지거)가, 성인이 살았던 장소와, 近, 가까움이.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고 맹자는 추나라 출신이고..두 나라가 붙어있다 말입니다. 若此其甚也(약차기심야)로되, 이토록 심한데, 이토록 가까운데도, 然而無有乎爾(연이무유호이)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無有乎爾. 無有, 없다. 乎爾는 어조사입니다. 그 도를 전해들은 사람이 없으니.. 공자의 도를 전해들은 사람도 없고 見而知之한 사람도 없으니 則亦無有乎爾(즉역무유호이)로다. 그렇다면 오백년 뒤에 이 도를 전할 사람도 없겠구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에요, 읽기에 따라서는 공자까지 도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이런 식으로 쫙 전해졌어요. 이 사이에 고요니 이런 신하들, 또 이윤이니 내주니 문왕, 무왕, 태공망, 산의생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도를 직접 자기가 가졌던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도를 전했던 자들입니다. 보고 알고 전해주고,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도를 실현하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방법을 알고 전했는데 공자 이후로 전해 받은 사람은 지금 없다, 지금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맹자시대에. 그러면은 지금 백년인데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이 뒤에도 없겠구나' 이런 얘깁니다. '오백년 뒤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도 없겠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밖에 없다는 얘기, 맹자가 스스로는 도가 끊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바로 자기가 아니면 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맹자 전체의 주조와 맞고, 주자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고 천년을 기약해서 주자 학자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천사백년 뒤에 程顥(정호), 정이(程頤). 정이가 동생이고, 이천선생이라 그래서 정이천이라 그랬고. 정호는 명도선생이라 그랬어요. 모공 문헌박이라는 사람이 정호를 명도선생이라 그랬어요, 죽음 다음에. 정오가 죽은 다음에 弟 己卯曰 墓(제 기묘왈 묘), 그 묘지명에다가 명도 선생이라 붙였어요. 왜? 맹자이후 천 여 년 동안 끊어졌던 도를 다시 세상에 밝힌 사람이라 해서 명도선생, 맹자를 요렇게 오백년 이어오던 것

www.artnstudy.com

은 천년을 기약한 그런 사상가다. 이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렇고, 주자도 마찬가지고, 이 후에 주자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물론 왕양명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맹자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문장이 사실 천고의 명문이에요. 천고의 명문인데. 정말 이게 그런 맥락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맹자가 천년을 기약한 그런 철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맹자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맹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ww.artnstudy.com